

FTA의 실체와 신자유주의



황 병 익
한국낙농경영인회 회장

축산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제곡물가격은 바이오에너지 개발로 급등하여 올해 들어 사료가격이 20%이상이나 인상되었고, 국제 원유가 마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축산업에도 본격적인 고비용 시대가 도래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겨울이 우리 축산농가 들에게는 가장 추운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선을 얼마 앞둔 지금 어느 대선후보 하

나도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농업 특히 축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축산은 사료를 수입에 절대 의존하는 취약한 경쟁력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뗏목과도 같은 처지입니다. 농림부축산국을 폐지하고 통폐합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구조조정 안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축산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이일에만 전념해온 우리에게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현실이 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선 우선 세계경제의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쳐오자 미국은 '케인즈'의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 를 버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무역과 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개방적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시켜

축산농가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FTA를 바라본다면, 자유무역이란 대단히 매력적이며 고통 받고 있는 현실경제의 모순을 타개할 새로운 개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그들의 관심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먼저 간파하고 그것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농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생존하는 산업이 이득을 얻도록 하는 시장경제논리를 신봉하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소위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어 미국은 경제력에서 유럽을 훨씬 앞서게 되고, 소련을 붕괴시키며 인류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희망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미국의 경제정책이 대성공을 거두자 우리나라도 IMF이후 10년째 진보정권에 의해 외형상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각 국가와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국도 '신자유주의' 신봉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FTA의 기본 인식입니다. FTA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 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믿는 나라끼리 맺는 양자 무역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던 FTA의 실체는 신자유주의정책 기조에 있었고 FTA를 저지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만, 실제로 FTA를 막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축산농가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FTA를 바라본다면, 자유무역이란 대단히 매력적이며 고통 받고 있는 현실경제의 모순을 타개할 새로운 개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그들의 관심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먼저 간파하고 그것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농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FTA수혜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해야만 합니다. 국가가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FTA로 제조업에서 얻은 이익은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환원되어야하고, 소비수요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짜야하며 사회복지정책으로 FTA에 희생당하는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결국 FTA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는 우리 축산농가 스스로의 몫입니다. 한 산업을 지켜나가던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자유주의' 라는 세계적 경제조류 앞에 우리만 희생당하는 것이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만 부르짖다가 그 자리에서 침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FTA수혜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해야만 합니다.

국가가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FTA로 제조업에서 얻은 이익은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환원되어야하고, 소비수요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짜야하며 사회복지정책으로 FTA에 희생당하는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원빈국에서 태어나 우리가 평생 지켜온 직장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불행한 미래 앞에 서있습니다. 이는 마치 동물원의 울타리를 모두 열어 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사자와 호랑이 기린과 얼룩말도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걸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선배들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에다 축산을 일구었고, 우리는 온갖 축산과동을 극복해가며 이제 낙농검정농가의 생산성은 젖소 두당 9천 KG을 넘어 세계 4위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결국 사람이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 투자해야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가 요구하는 농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농가를 지원하고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